기자칼럼

종로 중앙버스차로제, 연등회 대안 모색해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흥인지문(2.8㎞) 구간에 중앙버스차로제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한국불교 최대 축제인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5월 31일 JC데코코리아를 종로 중앙정류소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 우선협상기업으로 선정했다. 입찰에는 총 2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JC데코코리아는 디자인 · 설치계획 · 운영계획 등 정성평가에서 평균 68점(70점 만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달 내에 협상을 마치고 오는 7월 공사를 시작해 9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불교계는 이와 관련해 대응이나 대안 모색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본지 보도(1138호 참조)**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연등회보존위원회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확인 결과, 서울시와의 추가적인 접촉이나 해결방안 모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연등회보존위원회 관계자는 "몇 달 전 정류소를 이동식으로 설치한다는 방침을 전해들은 이후 딱히 오고간 얘기는 없다. 종로 지하상가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류소가 설치되면 보도쪽으로 옮기기 위해 거리 통제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비용을 행사 주최 측이 부담하라는 입장이어서 난감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사회서 불교계 의견을 관계부처에 전하자고 결의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오는 9월 봉은사서 열리는 제20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준비로 인해 여력이 부족한 상태다.

불교계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칫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종교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상가도 설득했고, 정류소 이동으로 행사에 지장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행사 주최 측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신뢰하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류소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연등회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도 뒤따른다. 결국 반대하자니 여론 눈치를 봐야하고, 수용하자니 비용이 부담인 셈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는 걸 이해해야할까.

현실적으로 중앙버스차로제를 반대할 수 없다면 현재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국고지원 증액 또는 서울시 협조 요청, 각 종단 분담금 상향 등 연등회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대안을 모색할 때다.

사월초파일이 국가공휴일로 지정되고, 연등회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며 전국적인 국민축제로 발돋움했던 과거만 돌이켜봐도 지금 상황은 열정 부족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지금이라도 서울시 계획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불교계가 대비할 것은 무엇인지 연구해야 한다.



윤호섭 취재부 기자

포교 혁신, 전문성 강화로 돌파구 찾는다

조계종 포교 제도개선 TFT, 전문화 방침 세워

조계종이 일선에서 활동하는 포교사 전문성 강화를 통한 포교 혁신을 추진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과 포교사단(단장 윤기중)은 5월 16일 포교 제도개선 TFT 첫 회의를 연데 이어 6월 1일 2차 회의를 열었다.

제도개선 TFT는 포교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포교원 국장단과 포교사단 임원들로 구성돼 있다.

포교 제도개선 TFT 활동은 5000여 명에 달하는 포교사에 대한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포교사는 포교 일선의 첨병으로 활동해왔지만 지역단과 사찰 활동 사이의 갈등과 몇몇 사찰 스님들의 낮은 인식으로 매년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TFT 회의에서는 현행 1차 필기합격에 이어 3개월 지역단 활동 후 선발과정에 전법 역량을 배양하는 교육을 추가하는 것이 논의됐다. 이밖에 포교사단 13개 지역단이 운영하는 400여 팀의 조직편제와 사찰과의 관계 개선 방법도 논의됐다. 포교원은 연내 포교원장 지홍스님이 주최하는 권역별 공청회를 열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포교사 전문성 강화 방침은 포교사단이 현재 진행하는 전문포교사 제도의 활성화에서 이미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2000년 도입한 전문포교사 제도는 2007년 1기 양성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전문포교사는 일반포교사로 3년 이상 활동하고, 단비 완납 및 분야별 연수 2회 이상 참석, 포교활동보고서 4회 이상 제출, 조계종 디지털대학 전문포교사과정 연수 등을 거쳐야 한다.

일반포교사 감소 타개책 모색
늘어나는 전문포교사서 착안
교재 보급 · 1년 연수 등 계획

현재 522명이 어린이 · 청소년 및 군경교도소 포교의 신행지도 분야, 불교문화해설 및 출판 · 인터넷 포교 등 문화예술 분야, 외국인 근로자 인권 및 복지상담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조계종 포교사단이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제11회 전문포교사 선발 서류전형에는 146명이 지원해 5월 15일 1차 합격이 발표됐다. 5월 28일 2차 면접 전형에는 144명이 응시해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이는 일반 포교사들의 전문성 강화 방침에 대한 높은 호응으로 풀이된다. 기수별 전문포교사 증가 추이를 보면 1기 40명을 시작으로 2기 20명, 3기 21명, 4기 11명, 5기 22명, 6기 55명, 7기 61명, 8기 79명, 9기 78명, 10기 135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포교사단이 지난해부터 전문성 강화를 기치로 내건 전문포교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포교사단은 최근 군포교, 교정교화 등 7개 영역 이론과 포교방법을 담은 연수교육 교재를 도입하는 등 교육 체계화에도 나선 상태다.

전문포교사 합격자 발표는 6월 15일로 포교사단은 140명이 넘는 이들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기가 배출되면 660여 명에 달해 전체 포교사에서도 14%를 넘게 된다.

윤기중 포교사단장은 "일선 포교가 활성화 되려면 가장 먼저 포교를 진행하는 불자부터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며 "일반 교리 중심에서 각 영역의 전문가를 배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TF과정에서 교육 커리큘럼을 세분화하고, 품계 전 연수도 1년 과정으로 늘리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올해 5월 20일 진행된 상반기 전문포교사과정 연수 모습. 포교사단은 포교사 전문화 과정을 통해 지원자 감소 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창종 70주년 '진각 100년' 선포

6월 15일, 총인원 성역화 회향 헌공불사 봉행

대한불교진각종(통리원장 회성)이 총인원 성역화 원만 회향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6월 15일 오후 1시 총인원 앞 광장 야외 특설무대서 열리는 진각 100년 비전 선포식을 겸한 '헌공불사'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불사는 진각문화전승원, 국제체험관, 교육관 등에 이르는 것으로, 행사는 1부 헌공불사와 2부 특별공연, 그리고 오후 3시 바자회에 이어 오후 7시부터는 회당문화축제를 개최한다. 특히 회당문화축제는 그동안 종조탄생지인 울릉도서 개최해 왔는데 이번에 진각종 창종 70주년을 겸해 서울 총인원서 열려 눈길을 끈다.

1부 헌공불사는 자성동이부터 학생과 청년, 스승과 신교도, 외국인이 함께하는 육바라밀 꽃 공양을 시작으로 △강도발원 △개회예참 △총인원 성역화의 의미를 담은 영상 상영 △경과보고 △음성공양(금강원의 죽비소리) △기념사(진각 100년의 비전 선언문) △헌공불사 특별이벤트 △축하연주(진동하네 진언향기) △폐회예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2부 특별공연은 봉은국악합주단 및 솔리스트의 공연과 특별 초청가수 설운도, 홍진영의 흥겨운 무대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2017 회당문화축제'는 김경호 밴드를 비롯한 역대 회당문화축제 출연자들이 무대에 오른다. 이에 앞서 진각복지재단과 진각행복디자이너 'JVC'가 함께하는 지역복지기금 마련 자선바자회도 오거리 특설무대를 중심으로 총인원 주변 일대서 열린다.

"한국불교 밀교 성지 초석"
회당축제 서울서 개최 '눈길'
지역복지기금 마련 바자회도

진각종 총무부장 호당 정사는 "총인원 성역화불사는 '회향'이라는 의미를 담은 대사회적 실천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국밀교문화 콘텐츠 생산과 전승보급에 기여할 진각문화전승원을 비롯해 청소년과 국제불교 교류의 중심이 될 진각국제체험관, 대사회적 실천의 중심이 될 진각복지센터와 성북 지역문화 교류와 나눔의 장이 될 복합 공간들을 통해 한국불교 밀교 성지가 될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고 성역화 불사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진각종 국제체험관과 교육관은 연면적 1만2천여㎡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국제체험관은 내 · 외국인들이 체류하면서 한국문화와 밀교수행을 경험하게 되며, 교육관은 유치원과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활용된다. 또한 지하 3층 및 지상 7층 규모의 진각문화전승원은 밀교의례 재현 및 전시관, 밀교문화콘텐츠센터 등을 갖춰 한국불교 전통 밀교문화의 변천 과정을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의장단 선출 위한 조계종 원로회의

6월 22일, 6개월 잔여임기 수행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단 선출을 위한 회의가 열린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대행 세민)는 6월 2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의장단 선출 등의 안건을 다룰 제54차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번에 선출되는 의장단은 잔여임기를 수행함에 따라 임기는 오는 12월 11일까지다.

한편 지난 4월 열린 53차 회의서 밀운 · 원명 · 명선 · 도문 · 월서 · 혜승 · 현해 · 고우 · 법흥 스님 등 원로 9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철웅(마곡사) · 설정(수덕사) · 법타(은해사) · 성타(불국사) · 지하(쌍계사) · 월주(금산사) · 보선(대흥사) 스님을 새 원로의원으로 선출했다. 또한 세민 스님을 부의장으로 선출, 의장직을 대행키로 하면서 총무원장 선거 이후 의장단 선출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 바 있다.

윤호섭 기자

태고종, 7월 13일 총무원장 선거

원로회의, 종회에 직선제 개정안 통과 촉구

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 선거가 7월 13일 열린다.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월봉)는 "7월 13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서 제26대 총무원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6월 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6월 13~15일 3일간 총무원장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16일 자격심사와 기호추첨에 이어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후보자 정견발표회 개최는 후보자간 협의해 실시한다.

후보자격은 태고종 재적승으로 연령 55세 · 승랍 30세 · 법계 종사급 이상이다. 후보등록 예정자는 6월 12일부로 사찰주지 이외의 모든 종단 종무직(공찰주지직 포함)이 자동 상실된다. 또 입후보자는 선관위가 정한 기탁금을 후보등록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날 태고종 원로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총무원장 직선제) 종법개정안 부결로 본종의 진보성이 후퇴되고 종단 위상 회복의 계기가 무산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 중앙종회가 130회 임시종회(6월 19일 예정)서도 부결시킨다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하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윤호섭 기자**

공 고 문

대한불교 원효종은 오랜 기간 동안 종권다툼으로 인하여 분열과 와해로 대내외적으로 종단의 명예가 실추 되었는 바, 법원은 서울고등법원 2007라 1580호 결정에 의거 임시종정으로 김윤철(향운)스님으로 결정하면서, 종단의 위의를 회복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윤철(향운)은 2009년 4월 13일자 첫 종회에서 종헌 종법을 위배하여 본인을 총무원장으로 하는 안을 당일 상정하여 총무원장으로 선출하게 하고, 본인이 임시종정이 지위에서 자신을 총무원장으로 임명하고, 이후 총무원장 중심제로 종헌을 개정하여 종단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종단의 종도인 이순서(원각) 이동수(성원)스님이 2009년 6월경 이 사건 종단 및 김윤철을 상대로 종단의 2009년 4월 13일자 김윤철(향운)을 총무원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하게 되었고. 법원(2011다101155로)은 2015년 2월16일 김윤철에 대한 총무원장 임명이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서울고등법원(2015나 7680로)은 2015년 6월 4일 종단이 2009년 4월 13일 경에 행한 김윤철(향운)에 대한 총무원장 임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그 즈음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7. 5. 12. 대구고등법원은 김윤철(향운)에 대한 2009년 4월13일자 총무원장임명이 무효인 이상 그 후 채무자 김윤철(향운)이 총무원장 지위에서 소집한 2013년 11월 28일자 종회결의도 무효이고, 따라서 위 종회에서 선출된 손영채가 총무원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2016나1756호). 김순석(용일), 이동수(성원)등 외 16명은 대한불교 원효종 종단 임시 종정의 권한을 행사하는 김윤철(향운), 총무원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손영채(우석)의 직무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울산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울산지방법원 제20민사부(2017카 합10083)는 2017년 5월 18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대한불교 원효종의 종정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김동윤을 선임 결정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종정직무대행자는 종단소속 사찰과 소속 종도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종무행정 질서를 재정비하고 확립하기 위하여 사암등록증, 주지 또는 대표임원 임명장, 종도증 내지는 승려증을 재교부하고자 공고합니다.

다 음

(1) 갱신범위 : 사암등록증 / 주지 또는 대표임원 임명장 / 승려증 또는 종도증
(2)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사진 / 제적등본(타종단 소속이었던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 도첩 / 자필이력서 / 증빙자료제출(2009년부터 2017년현재 분담금 및 승려 의무금 납부내역, 없으면 없는 대로 표시하시고 이유부기 바랍니다.)
(3) 접수기간 : **2017년 6월 12일 ~ 7월 11일 까지 제출**
(4) 수 수 료 : 서류접수 후 등록절차 진행 전 통지함
(5) 문 의 처 : TEL 051-241-3002 / FAX 051-241-3009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직무대행 변호사 김동윤